

관동대지진 관련 문학으로 본 조선인관*

- 자연주의 작가를 중심으로 -

이미경**
mikyung33@hanmail.net

<目次>

- | | |
|--------------------|--------------------------|
| 1. 머리말 | 4. 진재시의 일본인의 심상(心象) |
| 2. 관동대지진 이후의 정보 | 5. 지진 당시의 조선인에 대한 심상(心象) |
| 3. 폐허가 된 도쿄 참상의 기록 | 6. 맺음말 |

主題語: 관동대지진(The Great Kanto Earthquake), 조선인 (Korean), 군중심리(mass psychology), 일본인 (Japanese), 자연주의 작가(The writer of naturalism)

1. 머리말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대지진은 근대 일본의 100년 지진사에서 규모로는 6번째¹⁾지만 그 피해는 미증유라고 할 정도였다. 사상자 9만 천여 명, 행방불명 1만 3천여 명, 부상자 10만 4천여 명으로, 도쿄는 괴멸상태로 정치 행정의 모든 분야가 마비되었다.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자 일본정부는 조선인의 폭동, 시위를 막는다는 명목 하에 계엄령 발포와 유언비어를 퍼트렸고, 이로 인해 일본민중으로 구성된 자경단과 일본경찰은 집단 학살이라는 민족범죄를 일으킨 것이다.

메이지시대 이래 일본제국은 대만침공, 서남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몇 차례의 전쟁을 일으켰다.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도 일본 당국이 지닌 식민지 전쟁 의식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대지진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자가 식민지 전쟁 당시 일선에 있던 자가 이의로 많았다는 사실이다. 조선인의 굳건한 항일의식을 체험한 이들은 일본에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35C-2011-2-A00705)

** 한국외국어대학 통번역학과 강사

1) 金原左門(1983)『昭和への胎動』小学館, p.183

적대의식을 가진 조선인이 지진 당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선제공격으로 계엄령을 선포했고 민관(民官)에 의한 대량학살 자행된 것이다.

일본의 쇼와시대의 시작은 대지진 3년 후가 되지만 일본은 관동대지진 발생 후의 사상, 문화 등의 급격한 변화로 사실상의 쇼와시대가 시작되었다. 한 시대의 막을 내리게 할 정도의 진재와 학살이라는 일대 사건을 작가는 작품으로 다루었는데 일본인이 가해자로서의 직접적인 언급, 반성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서양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에 있어서 다른 어느 작가들에게 뒤지지 않았으나, 작품에 있어서의 사회성의 결여가 문제시된 자연주의 작가의 관동대지진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관동대지진 직후에는 이른바 재해 속의 인간 군상들을 감상적으로 쫓거나 아니면 르포르타주 형식을 빌려 지진의 참상을 평면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이 대부분이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1872-1930, 이하 가타이로 함)의 『도쿄진재기(東京震災記)』(1924년 4월 博文館)와 대지진 엄습으로부터 불과 1개월 후부터 발표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島崎藤村:1872-1943, 이하 도손으로 함)이다. 그렇기에 지진 당시의 일본인을 비판하는 도쿠다 슈세이(徳田秋声:1872-1943, 이하 슈세이로 함)의 『소화기(ファイアガン)』(1923.11 중앙공론)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슈세이의 『소화기』와 가타이의 『도쿄진재기』, 도손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내포된 일본인의 심상과 조선인에 대한 묘사에 내포된 당시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심상(心象)을 고찰하고자 하고자 한다.²⁾ (본문의 내용에는 민족적 차별 발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차별을 극복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당시 문헌에서 나타난 원문 그대로 인용해 다루고자 한다)

2. 관동대지진 이후의 정보

대지진이 일어나면 해일이 덮쳐온다는 상식으로 사람들이 허둥대고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한 곳은 도쿄에서만도 187곳에 달했다. “불길이 가장 빠를 때는 시간당 800미터 이상의 속도로 거리를 삼켜나갔다”³⁾고 한다. 도쿄 전체가 불안과 공포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계엄령이

2) 작품의 텍스트는 가타이, 田山花袋(1991)『東京震災記』社会思想社, 슈세이, 徳田秋声 (1973)日本近代文学大系『徳田秋声集』21卷「ファイアガン」, 도손, 島崎藤村(1950)『島崎藤村全集』第11卷、「子に送る手紙」新潮社로 하고자 한다.

3) 야마다 쇼지(2008)『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논형, p.30

발포되었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조선인이 방화를 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졌다. 이에 일본인은 남의 불행을 틈탄 비열한 자, 즉 조선인에 대한 분노가 증폭되기에 이른 것이다. 지진 당시에 일본에서는 계엄령이 발포된 계엄권력 아래에서 민관(民官)이 일체가 되어 조선인을 적대시하는 시각이 있었기에 대학살이 감행되었던 것이다.

9월 2일에는 계엄령이 발포되었고(공식적으로는 2일로 되어있지만, 강덕상은 9월 1일 저녁이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보도기관은 지진 발생으로 활자 케이스가 무너져서 활자가 흩어지면서 도쿄의 16개 신문사 중에서 13개가 소실됨으로써 보도기관이 마비되었다. 도쿄에서는 9월 5일이 되어서야 소실되지 않은 도쿄 니치니치(日日) 신문 석간이 가장 빨리 복귀되었다. 9월 2일 오전 10시 이치가야 사관학교 담벼락에는 “오후 1시에 강한 지진이 있을 것이며 불령선인이 습격해 올 것이다”라는 벽보가 게시되었다. 9월 3일에는 ‘불령선인 점점 확대, 불령선인 300여명이 손에 손에 폭탄을 들고 던지고, 혹은 방화하고···, 전폭도의 무리가 폭탄을 던지고 방화하는 것을 목격⁴⁾, 선인(선인) 도당 상수도에 독을 살포, 죄인 3백명 탈옥해 선인과 함께 대폭동 등⁵⁾의 기사가 실린다.

또한 9월 3일 홋카이도 오타루신문(小樽新聞)은 ‘불령선인 곳곳 방화, 석유통과 폭탄을 지니고’라고 썼으며 9월 4일자 신아이치 신문(新愛知新聞)은 ‘발전소를 습격한 선인단(鮮人團), 불령선인 1천명과 요코하마에서 전투, 일개 소대 전멸인가’라고 쓰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신문의 호외기사와 벽보, 유언비어로 인하여 일반 시민은 자신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경단을 결성하였고 증오로 광분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이러한 보도와 군대가 움직이는 상황 등을 통해 유언비어를 정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9월 4일 아침이 되자 “선인의 폭동은 유언비어였다. 자경단은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통지로 유언비어를 퍼트린 당사자인 경찰이 말을 바꾸었지만 살기등등했던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것이다.

계엄령 하에서는 신문, 잡지, 방송 등 각종 언론미디어를 대상으로 보도통제가 되었는데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11월 15일이 되어서였다. “일본전국에 걸쳐 신문잡지의 기사 게재가 절대 금지되어 있던 지진 이후의 어수선한 와중에 벌어진 모 중대사건은 드디어 10일 이내에 보도 통제가 해금된다”⁶⁾ 어수선한 와중에 철저하게 언론이 통제된 것은 조선인 학살 사건, 오스기 사카에 학살 사건, 가메이도 사건이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신문기사화 된 것이 9월 25일의 오스기 사카에 학살사건이었다. 관동대지진 직후, 지방 신문은 유언비어를 그대로

4) 山形県 쇼나이 신문(庄内新報, 号外, 1923.9.3)

5) 新潟県 가에츠 신문(下越新報, 1923.9.3)

6) 読売新聞 1923.10.14

기재해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조선인에 대한 벽보가 붙어서 민중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폐허가 된 도쿄 참상의 기록

1924년 1월에 간행된『도쿄진재기』는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직후부터 연말까지 수개월 동안의 체험기로, 가타이가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은 참상을 생생한 필치로 기록하고 있다. 다음의 목차부분은 본문을 구체적으로 발췌하고 있는데 작가 본인이 강조하고자 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この世の終わりかと思った/金棒の音/下町7)は偉い 火事だ/私は外出した(3日目) / 靖国神社中に避難者/宇都宮師団らしい兵士/焼け落ちた組橋/不逞鮮人騒動/動揺-混雑-流言/私の『廢墟』/被服廠/まるで炭団でも積み重ねたように『廢墟』/2,30年も逆戻り/箱根から東京までの汽車レイルの上/被服廠の中の私の知っている人達/死屍を焼く煙/白骨を積み上げた被服廠/『沢山の死屍を呑んだ』と思うと恐ろしい川だ』/自警団事件についての対話/夜警/今年は餌があるので鰻が多く集った/一月十五日の激震8)“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자경단의 ‘쇠파이프 소리’/가장 피해가 심했던 시타마치/ 지진 후의 화재로 도쿄는 불바다/3일째 되는 날 외출/ 야스구니(靖国)신사 안 가득찬 피난민/ 우즈노미야(宇都宮) 사단인 듯한 병사/ 불타 끊어진 마나이트(組橋) 다리/거리의 이상한 괴물 조선인/ ‘불령선인(不逞鮮人)소동’/자신이 목격한 이야기/동요-혼잡-유언비어/시체는 거리를 메웠다/ 나의 ‘폐허(廢墟)’/시체가 쌓여있던 히후쿠쇼(被服廠)9)/시체를 ‘마치 조개탄이라도 쌓아올린 것처럼’/ ‘폐허(廢墟)’/도쿄는 ‘2, 30년이나 여행’했다/ 긴자의 옛날과 지금/여진으로 인한 ‘또 화재인가’/하코네에서 도쿄까지 가차 레일 위에서 걷는 피난민/ ‘시체를 태우는 연기’/‘백골을 쌓아올린 히후쿠쇼’/‘많은 시체를 삼켰다고 생각되는 무시무시한 강이다’/‘자경단 사건에 대한 대화’/ ‘야경(夜警)’/‘내가 공상한 여자’/ ‘올해는 먹이가 있어 송어가 많이 모였다’/1월 15일 격진

7) 도시에서 지대가 낮은 곳에 있는 마을. 거의 상공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도쿄에서는 浅草・下谷・神田・日本橋・京橋・本所・深川 등의 지역을 말한다.

8) 花袋 텍스트, pp.21-25

9) 구 일본육군부대에 지급하는 피복품의 조달, 분배, 제조, 저장을 담당하는 공장으로 이것을 통괄하는 기관의 총칭. 관동 대지진 당시 이곳에는 많은 사람이 가재도구 등을 가지고 피난해 있었다. 이 가재도구로 인하여 여기서만 도쿄시 전체 사상자의 반수 이상인 3만 8천여 명이 여기서 화재로 사망했다고 한다.

러일전쟁에서 자신이 보고 느낀 그대로를 『제 2중군일기』로 기록¹⁰⁾했던 가타이는 『도쿄진재기』에서도 냉정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묘사하려고 한 노력을 읽을 수 있다. 피해 입은 도쿄의 여기저기를 취재하듯 걸으며 확인하고, 지인과 만나고 행인에게 들은 것을 적었는데, 위 문장 만으로도 도쿄의 폐허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전문’에서 신문이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기록’과 ‘설명’보다도 ‘묘사’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는데, ‘생생한 광경’과 ‘생생한 느낌, 기분’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가타이는 도쿄 도심과는 좀 떨어진 분쿄구(文京区)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여행이야기를 하던 중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 상황을 “세상의 끝이 아니면 쉽게 볼 수 없는 적막함이, 침묵이 주변 일대를 점령했다”¹¹⁾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여러 무시무시한 소문이... 혼초(本所: 墨田区の 지명)는 전멸했다든가, 죽은 사람이 산처럼 있다든가, 스미다가와(隅田川)는 죽은 자로 가득하다는 뜬소문이 있었기 때문에”¹²⁾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시내로 나간다. 당시의 참담하게 무너지고 붕괴되어 폐허를 방불케 하는 모습에 자신이 러일전쟁 때 몸소 경험한 바 있는 ‘전쟁터에 온 듯한 느낌’¹³⁾을 받는다. 가타이는 마음도 혼도 전부 빠져 나간 듯 큰 충격을 받았고 전쟁터가 아니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참담한 광경은 ‘끔찍한 혼란과 통일감이 없는 혼잡’¹⁴⁾이었다고 표현했다.

동경 시가 쪽에서는 큰 화재로 무시무시한 불이 회오리바람을 일으켜서 어디를 가도 불 뿐으로 수만 명이 타죽은 비참한 상황을 목격한다. 부모와 자식, 부인과 남편은 헤어지고, 각자가 자신의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비극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불에 타버리느니 차라리 물에 빠지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하고 다리 위에서 훌쩍지듯 뛰어드는 슬픈 광경¹⁵⁾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론, 실천면에서 자연주의 문학의 지도적인 역할을 다한 작가이자 논픽션작가였던 가타이는 『도쿄진재기』에서 폐허가 된 도쿄의 참담한 광경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전하고 있는 것이다.

10) 이미경(2012)「花袋의 전쟁체험 고찰」『일본언어문화』제21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1) 花袋 텍스트, pp.38-39

12) 花袋 텍스트, p.47

13) 花袋 텍스트, p.31

14) 花袋 텍스트, p.48

15) 花袋 텍스트, pp.41-42

4. 진재시의 일본인의 심상(心象)

지진 당시의 도쿄 모습을 가타이가 주로 묘사했다면, 슈세이는 일본인의 심리를 주로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파’¹⁶⁾라고 할 정도로 일본 자연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작가인 슈세이는 서민적인 여성의 삶과 자신의 심경을 그리는 것이 특유의 모티브였다. 이런 그가 여성을 주제로 다룬 작품과는 달리 이색적이며 풍자적인 형태로 쓴 소설이 『소화기』(中央公論, 1923.11)로 지진에 대처하는 인간에 대한 비판을 담았는데 그의 전 작품을 통해 보더라도 새로운 작품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관동대지진 당시, 슈세이는 고향인 이시가와현에서 지진 소식을 접하고, 3일후에 도쿄로 상경한다. 슈세이의 지진 관련 작품으로는 『소화기』외에 『여진의 하룻 밤(余震の一夜)』(改造, 1924.1)과 『불안한 가운데(不安の中に)』(中央公論, 1924, 1)가 있는데, 『소화기』를 제외하면 주관적이고 신변잡기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지진 발생 2개월 후에 발표된 『소화기』는 지진 당시를 주제로 다룬 소설로 관동대지진 때의 슈세이의 심정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일본 자연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작가이지만, 문학 중기에 접어들면서 사소설이 아닌 객관소설로서 『어느 매춘부의 이야기(或売笑婦の話)』(1920), 『차장부부의 죽음(車掌夫婦の死)』(1924)등의 단편소설을 쓴다. 이렇듯, 여성을 주제로 다룬 작품이 대부분인데 『소화기』에는 여성이 한명도 등장하지 않는 것은 특이한 것이다.

“70이 넘는 나이가 되어 성장의 정상에 선 작가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에도 그 예가 없을 것이다.”¹⁷⁾ 라고 히로쓰 가즈오(広津和郎)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그가 풍자소설을 쓴 이유는 관동대지진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에 원인도 있겠지만, 5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한 작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장의 단계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소화기의 첫 부분에서는 지진 당시의 일본인의 심리, 군중심리가 잘 표현되어 있다.

不斷ならばちよつと好い氣持のしない表情の持主でも、全市が大混亂のなかにあつて、大自然の暴威の前に一樣に慄へあがつてゐた時なので、人間の本能がもつてゐるどんな勝手な真似でもが、共存的な好いところと一つになつて極度に拡大されてゐた時なので——勿論人間の悪い智慧や好い智慧や、深刻な心理がみんな閉塞してしまつて、最も手近な感情ばかりが働いてゐたから、普通の犯罪が犯罪らしくもみえなかつただらうし、たとひそれが犯罪であつたにしても、群衆心理に支配された種類のものであつたから、それがちよつと普通一般のことのやうに

16) 伊東整 外7人(1965)『新潮 日本文学小辞典』新潮社, p.808

17) 徳田秋声(1970)『徳田秋声論』徳田秋声集 日本文学大系15』筑摩書房, p.357

思はれた。(秋声 텍스트, p.370) 평소라면, 좀 기분 나쁜 표정인 자에게도 대자연의 거세고 난폭한 세력 앞에 도쿄 전체가 대혼란에 빠져 모두 전율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저지른 몇대로의 행동도 공존하는 좋은 것과 하나가 되어 극도로 확대되었을 때였으므로 –물론, 인간의 악 지혜와 좋은 지혜, 심각한 심리가 모두 폐쇄되어 버려서, 가장 천박한 감정만이 작용하고 있었으므로 보통은 범죄인데도 범죄처럼 보이지 않았고, 가령 그것이 범죄라고 해도 군중심리에 지배된 종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저 일반적인 일처럼 생각되었다.

대지진으로 인간의 심리가 폐쇄되어 모두가 큰 혼란에 빠져있을 때, 악 지혜가 발동해서 제멋대로인 자정단의 무분별한 학살행위가 일어났다. 그것은 대자연의 위협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범죄가 범죄처럼 보이지 않은 당시 일본인의 심리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제멋대로의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었는지, 정확한 언급은 슈세이의 『소화기』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여기서 슈세이는 일본인들의 범죄는 ‘군중심리¹⁸⁾에 지배’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으로 보였다고 했는데, 잔혹한 행위조차도 군중심리 때문에 일으킨 행동이므로 일반적으로 생각되었다는 것은 당시 옳고 그름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했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당시 일본인들은 지진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든 많은 사람이 함께 저지른 범죄이기에 범죄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아야만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악지혜가 발동해서 조선인 학살이 일어났다는 원인파 학살 후의 인간 심리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슈세이는 지진 당시의 사건, 상황에 대해 극대화한 해석 때문에 잔학한 행동이 일어났다면 일본인의 행동에 ‘잔학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犯罪を捜す目に映る総ての物が、また顕微鏡か何かで見るやうに異常に拡大されてゐたので、人道に許しておけない残虐が、この際仕方ないことのように思へたり貴重な人命が自分さへ其の災厄にかからなければ、何の値打もないもののやうに感ぜられたりした。感覚にふれる総てのものが何一つ不斷の状態におかれてはゐなかつた。(秋声 텍스트 p.370) 범죄를 발견하는 눈에 비추어진 모든 물건이, 또 현미경인지 뭔지로 보는 것처럼 이상하게 확대되어 보였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 상, 용서할 수 없는 잔학함이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거나 귀중한 인명이 자기만 그 재액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무렇지 않은 듯 느끼거나 했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이 무엇 하나 보통 상태가 아니었다.

18) 군중이 만들어내는 심리상태. 르본은 개인은 군중이 되어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정서성, 흥분성, 피암시성, 반사회성, 극단성 등의 특징을 갖는 군중 심리에 쉽게 감염된다고 주장, 이 말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의 견해는 그 후 군중심리, 개인 심리와 대립시켜서 그 비합리성을 강조하는 시점은 많은 논자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다. 사회학사전(1988), 弘文堂, p.239

슈세이는 현미경을 통해 물체가 확대되어 전체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평상시의 도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잔학성이 대지진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며 합리화시켜 버린 심리상태를 말하고 있다. 또한, 이기적인 심리 상태로 자신만 재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괜찮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만연한 상태를 쓰고 있다. 당시 사람들이 폐허가 된 도쿄에서 죽음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현실적인 분위기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刑事たちは、その時ひどく一般から恐怖されてゐる鮮人の行動や、錯誤から來た殘虐などについて各自の見聽きしたことを話し合つてゐた。(秋声 텍스트, p.370) 형사들은 그때 일반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던 조선인의 행동이나 착각으로 일어난 잔학함 등에 대해 각자가 들은 바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슈세이는 일본인이 일으킨 ‘잔학한 행동’이었던 조선인 대학살이 조선인의 행동에 대한 착각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인이 일으킨 행동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다만, 유언비어로 인해 그렇게 보였을 뿐이었다. 일본인은 조선인이 습격해올 것이라는 유언비어로 인해 자경단을 구성해서 외모와 언어로 조선인을 구별하는 작업을 하거나 죽창으로 살해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으켰는데 슈세이 소설 속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그렇지만, 그 유언비어의 실체에 대해서는 원인을 수색해 보아도 “아무런 근거도 사실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¹⁹⁾고 작가 자신이 정확히 소설에서 밝히고 있다. 슈세이는 『소화기』에서 관동대지진 당시의 일본인의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와 일본인이 일으킨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예리한 시선으로 응시하며 자신의 작품의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5. 지진 당시의 조선인에 대한 심상(心象)

『도쿄진재기』에서 조선인에 대한 묘사는 주변의 소문에서 시작된다.

妻は小声で『何でもいろいろな噂がありますよ。そういうものが百人も堀の内において、それが此方にやって来るっていう話ですよ』『馬鹿な』『だって、そう言って来たんですもの』『誰が?』『誰がって・・・町の者が誰れか知れないけれども--』『巡査じゃないんだろう?』『どんな人だえ?』『普

19) 秋声 텍스트, pp.370-371

通の麦藁帽子をかぶった人だったよ』『だって、近所でも大騒ぎをしていますよ。警察や兵隊だ
けじゃ不安心だッて、皆な竹槍なんか拵えたり何かしていますよ』(花袋 텍스트 pp.68-69)아내는
작은 소리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백 명이나 굴속에 숨어서 있다가 글썽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바보같은 소리” “글썽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누군지 ...마을 사람
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순사는 아니지?” “어떤 사람이었지?” “보통 밀짚모자를 쓴 사람이었
어요” “주변에 큰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경찰이나 병사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고 모두 죽창
따위를 만들어 가지고는”

밀줄의 ‘그런 자’란 100명이 굴에 숨어 있다가 이쪽으로 몰려온다는 내용으로 조선인임을
알 수 있는데, 가타이가 소문을 ‘바보같이’라며 일축시키는 것을 볼 때, 소문을 진실로 받아들
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순사는 아니지?’ 라는 말에서 순사가 한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과 사회주의자에 대한 소문은 유언비어가 되어 날이
갈수록 더욱 시끄러워져 갔고, 이런 일련의 상황은 일본인을 압박하며 불안하게 했던 것이다.
3일 저녁의 내용은 가타이가 직접 목격한 형태로 적고 있다.

『...人?叩き殺せ?』とか何とか言って、バラバラ大勢が追いかけて行くような氣勢を耳にした。
慌てて私も出て行って見たが、丁度その時向うの角でその.....人を捉えたとかで、顔から頭か
ら血のだらだら滴っている真蒼な顔をした若い一人の男を皆なして興奮してつれて行くのに
びったり出会した。私はいやな気がした。いずれあの若い男は殺されるだろうと思った。気の
毒だとも思った。(花袋텍스트 p.70)“...사람? 때려 죽여라?”라며 많은 사람이 우르르 뒤쫓아 가는
기세가 느껴졌다. 나도 성급하게 나가 봤다. 그때 마침 저쪽에서 “그...인을 잡았다” 고 말하며,
얼굴과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창백한 얼굴을 지닌 젊은이를 모두 흥분해서 끌고 가는 모습에
딱 맞닥뜨렸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결국, 그 젊은이가 살해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여기서 ‘...인?’이 조선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무리지어 쫓아가는 광경, 저녁이라고는
하지만, 얼굴에서 머리까지 피를 흘리며 끌려갔다는 것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자경단이
한 행동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당시 집단으로 무리지어 행동했다는 점에서 자경단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가타이는 눈앞에서 목격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피 흘리며 끌려간
조선인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그가 유언비어처럼 근처 가스탱크에서 맴돌아 자신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생각하자 잡힌 것에 대해 오히려 안심하는 것이다.

‘...인’으로 표현한 조선인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조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저지르

지도 않았는데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는데 물론,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이보다 더한 집단학살이 이루어 졌으나 가타이의 기록에 이 이상의 표현은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도손의『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지진 발생 후 4, 5일 동안의 내용을 10월 8일부터 신문에 게재하고 있는데, “나는 편지에 쓰려고 한 것을 많이 쓰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²⁰⁾고 했듯이 신문지면 관계상 생략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지진, 대화재, 회오리바람, 해일, 모든 천재지변이 일어날 듯한 비상시에 “작은 유언비어에도 움직이기 쉽게 된 것은 어린이들 뿐이 아니었다. 쉬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던 어른까지 모두 어린아이처럼 되었다”²¹⁾ 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어린이가 할 듯한 어리석은 행동을 어른도 했다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작가는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침묵, 소리조차 내는 것이 두려운 상황,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한 속에 “우물에 독약을 넣는 자가 있는 듯하니 주의 하세요”²²⁾ 이런 경고가 불안을 가중했고, 문 밖에서는 엄중한 경계를 섰다. 이처럼 유언비어의 실체는 지진의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일본인에게 모르는 자로부터 또는 자경단으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소문처럼 번졌다는 것을 가타이와 도손의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가타이는 조선인을 ‘괴물’로 표현했지만, 도손은 조선인을 ‘적’이라고 표현했다. 적이라면 모두를 위협하는 존재로 공동으로 무찔러야 할 존재 그것이 조선인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敵が来る、敵が来る。お伽話でもない限りは信じられないやうな、二千人もの敵が襲つて来るといふ風聞はその翌日になつても続いた。“적이 온다, 적이 온다. 옛날이야기에서도 나오지 않는 2천명이나 되는 적이 습격해 온다는 소문은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되었다” (藤村 텍스트, p.221)

당시의 혼란한 틈을 타고 2천명이나 되는 적인 조선인이 습격해 온다는 것은 평상시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었으나, 불안과 공포에 떨며 이성이 마비되어 있던 일본인은 분동하기에 이른 것이다.

「いづれ、こんなことを言ひ觸らして歩く奴があるんでさ——斯ういふ時には、馬鹿や狂人がよく飛出しますからね」といつて憤慨するものがあつた。こんなに多くの人が苦しみを重ねて居るのを見たら、敵でも私達を救ふ氣に鳴るだらう。實際、私達は噂のある敵の來襲よりも、自分等のうちから飛出す幽霊を恐れた。そんな流言に刺激されて、敵でもないものが眞実の敵となつて顯れて来るのを恐れた。(藤村 텍스트, p.219) “아무튼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20) 藤村 텍스트, p.219

21) 藤村 텍스트, p.217

22) 藤村 텍스트, p.218

서- 이럴 때는 바보, 미치광이가 나오니까 말이야’ 하며 분개하는 자도 있었다. —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적이라도 우리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실제로 “우리들은 소문 속의 적이 습격해 오는 것보다도 자신들 속에서 뛰쳐나온 유령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떠도는 말 때문에 적도 아닌 자가 진짜 적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두려웠다”

도손은 실제로 두려운 것은 지진으로 인한 바보, 미치광이, 소문 속의 적보다도 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 속에 존재하는 유령이 두렵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도손은 일본인 내부에도 적이 존재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 자신들 내부에 숨어있는 유령이야말로 두려운 존재임을 호소하고 있는데, ‘소문의 적’ 즉 유언비어 속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나타나는 것이 더 두렵다고 내부의 적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유언비어는 아무 것도 아니며 내부에서 나타난 유령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존재라는 표현이라고 본다.

다음은 조선인의 용모에 대한 문장이다. 가타이는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조선인 소동에 대한 언급 조선인을 닮았다며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それに、いくら、君は似ているところがあるからね?』『私が、鮮人に?』『髪をいくら長くしているところなどが、似ているよ』『いやだなア、やり切れない?』『いやに顔が細長く、蒼白いところなんかも似ているよ』(花袋 텍스트 p.250 “그게 자네는 좀 닮았다니까.” “내가 조선인하고?” “머리를 좀 기른 데가 닮았어” “정말, 참을 수 없군” “너무 얼굴이 가름하고 창백한 것도 닮았다니까”

조선인으로 오해받아서 죽을 뻔한 이야기 속에 당시 일본에 거주한 조선인의 인상을 말하며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인데, 조선인으로 오해 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사실 오해받아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므로) 대화체로 쓰고 있다. 가타이는 머리를 기르고, 얼굴이 너무 가름하고, 창백한 데가 조선인을 닮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도손은『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선인의 인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その時、私は日頃見かけない人達が列をつくつて、白服を着けた巡査に護られながら、六本木の方面から町を通り過ぐるのを目撃した。脊の高い體格、尖つた頬骨、面長な顔立、特色のある目付謎で、その百人ばかりの一行がどういふ人達であるかは、すぐに私の胸へ來た。中には十六七ばかりになる二三の少年も混つて居た。その人達こそ今から三十日程前には實に恐ろしい幽霊として市民の眼に映つたのだ。(藤村 텍스트, p.208) 그때, 나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사람

들이 순사에게 보호받으며 흰옷을 입고 줄지어 뚝배기 방면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키가 큰 체격, 뾰족한 광대뼈, 긴 얼굴, 특이한 눈빛 등으로 그 백여 명이나 되는 일행이 누군지 금방 알았다. 그중에는 열여섯, 일곱쯤 되는 두, 세 명 소년도 섞여 있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지금부터 30일정도 전에는 실로 두려운 유령으로 시민 눈에 비쳤던 것이다.

여기서 조선인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30일쯤 전이므로(소설은 지진 33일 후에 쓴 것이다) 9월 초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때에 유령으로 생각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인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없다. 또 계속되는 문장에서 “아마도 시바우라(芝浦 : 도쿄항의 일부)를 향해 귀국을 서두르는 듯한 일행을 전송했다”고 표현한 ‘귀국’이라는 단어에서도 역시 조선인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직접적인 표현 없이 우회적인 표현에서 신문이라는 파급효과가 갖는 특성상 조선인에 대한 이 이상의 표현은 연재소설이라고 해도 쓸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을 엿 볼 수 있다. 일본인보다는 큰 체격, 긴 얼굴, 광대뼈, 특이한 눈빛, 흰옷을 즐겨 입던 조선인을 특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조선인의 외모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슈세이는 조선인을 무뢰한 조선인이라는 뜻의 불령선인(不逞鮮人)과 그들로 표현하고 있다.

「使用法さへ知つてゐれば、危険のないこともわかつてゐる譯だが、多分不逞の鮮人が、秘密に買ひ取つたものでせうよ」(秋声 텍스트 p.377) 사용법만 알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아마도 무뢰한 조선인이 비밀스럽게 사들였겠지요.

「たとひ彼等がそれを使用しないにしても、落して歩かれては大変ですからな」(秋声 텍스트 p.378)「예를 들어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떨어뜨리고 가면 큰일이니까요」

문제가 풀리지 않자 폭탄 전문가인 박사는 불명확한 답변으로 얼버무리면서 모두의 관심을 조선인 문제로 몰아가고, 정체모를 물건이 폭탄은 아니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이 몰래 사들여 와서 불이 더욱 커졌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내 놓는 것이다. 당시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로 두려움이 극에 달하자, 원인을 조선인으로 돌리는 것이다. 밑줄의 ‘그들’도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조선인을 표현한다.

미증유의 대지진은 사람들의 평상심을 잃게 했고, ‘이때니까, 이런 때니까(피해자가 하는 말)’²³⁾ 라는 유행어가 당시에는 사용되는데, 그것은 ‘이런 때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 다시 생각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23) 神田文人(1986)「この際だから」『昭和史年表』小学館, p.5

「たしかに消火器に違いありません。何しろこの周りに集つて、鮮人が今ここへこれを落して逃げたと言ふものがあつたものですから、そいつは大変だといふので、急いでご報告に及んだやうなことで。。。いやそれでこの文句がよく判る。説明者の僕自身が、どうも色眼鏡をかけてみてゐたから。」「こんな時は、誰でも悪い方へ悪い方へと解釈したがるですからね。」背広は氣の毒さうに言つた。(秋声 텍스트 pp.381-382) “확실히 소화기임에 틀림없어요. 어째든 사람들이 모여서 조선인이 이걸 떨어뜨리고 방금 도망쳤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서.. 그 자가 큰일이라고 해서.. 급히 보고한 것인데.... 아 이걸로 문구를 잘 알았어요. 설명하는 내가 아무래도 색안경을 쓰고 보나” “이런 때는 누구라도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으니까요” 양복은 동정하듯 말한다. “그래도 박사는 박사군. 도리에 맞지 않는 걸 그럴듯하게 말하지 않았나” “그래, 그래. 우리조차 넘어갔으니까” 경찰서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조선인에 대한 오해, 색안경을 쓰고 조선인을 보았다는 것,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습관 등은 당시 일본인의 심리였던 것이다. 조선인이 떨어뜨리고 갔다는 말만으로 겁에 질려 모두가 폭탄이라며 소동을 벌인다. 슈세이는 지진 당시 지식인에게 농락당한 것을 ‘소화기’라는 물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에피소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폭탄이라고 겁내던 물건의 실체는 어이없게도 형사가 다른 소화기를 가져오면서 밝혀지고, 박사의 지식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과 지식인인 박사가 한 말이니까 믿어도 된다는 허상에 사로잡혀서 냉정히 사물을 볼 수 없었던 모두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다. 박사의 영어 해석도 엉터리라며 경멸하는데, 박사는 ‘어쨌든 이때이니까.’라며 대지진의 때니까 무엇이든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자기변명을 한다. 여기서도 ‘이때이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신의 실수가 모두를 불안하게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합리화의 모습까지 보인다. ‘이런 때니까’에서는 이 때니까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다는 것, 또 어떤 일이 벌어졌든 합리화를 시킬 수 있다는 당시 인간의 왜곡된 심상을 엿 볼 수 있다.

야마다 쇼지(山田昭次)는 일본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민중의 책임도 묻고 있는 데 “일본 국가가 스스로는 반성할 수 없는 체질을 갖고 있는 이상, 국가 체제에 함몰되어 조선인 학살에 가담했던 일본 민중이 먼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들이 행한 조선인 학살로 물고 가서, 민중이 국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²⁴⁾고 했다.

금 병동(琴秉洞)²⁵⁾은 “근대 이후, 일본 지식인의 진위를 구분하는 시금석을 무리해서 말한

24) 야마다 쇼지(2008)『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논형, p.7

25) 1927년 후쿠오카(福岡) 출생(본적은 경상북도 문경). 일본 조선대학교 교수 및 도서관 부관장 역임. 주요 저서 및 편서로는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關連兒童証言史料 編解説(緑蔭書房, 1989)』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關連官庁史料 編解説(緑蔭書房, 1991)』 『朝鮮人虐殺に関する植民地朝鮮の反応 編解説(緑蔭書房, 1996)』 『朝鮮人の日本観—歴史認識の共有は可能か(総和社, 2002)』 『告發 ‘從軍慰安婦’(同時

다면 그것은 전쟁에 어떻게 대처 했는가, 대지진²⁶⁾ 때 조선인 학살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대처법도 포함해서)²⁷⁾ 라고 했다. 여기서 일본 지식인의 진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라고 한 것은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본다. 특히 금병동은 하니 고료(羽仁五郎)²⁸⁾의 “문호라고 불리는 대 작가(谷崎淳一郎: 논자 주)도, 조선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진짜의 인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조선인 학살을 언급하지 않은 작가는 진짜가 아니라는 단정을 나 자신은 내릴 자신과 용기도 없지만 그 후 나는 적어도 일본 지식인의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을 알게 되면서 당사자의 사회적인 입장, 또는 당시 사상과 인간성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조선인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흥미를 느끼고 있다²⁹⁾”고 말했다. 또, 사토 하루오(佐藤春夫)도 “문학자가 정밀한 기록(조선인에 대한 : 논자 주)을 쓰지 않았다면 현대문단의 수치이다³⁰⁾”라고 했다. 이처럼 관동대지진에 대한 대처 방법은 작가의 진위를 묻는 중요한 판단기준임을 알 수 있다.

『도쿄진재기』에서는 조선인이란 단어가 직접 언급되는 것은 세 차례 뿐이고 나머지는 괴물 등의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조선인에 대한 표현조차도 극소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손의『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세 작품 중에서도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된 이유도 있겠지만, 어디에도 조선인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유령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소화기』에서는 불령선인이라고 정확히 조선인을 가리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전반적인 내용이 조선인에 대한 오해로 빚어지는 사건임을 볼 때, 다른 두 작품보다는 조선인을 중심 주제로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량학살이 자행된 관동대지진 당시의 진재 테러에 대한 심각한 성찰은 세 작품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6. 맺음말

가타이는『도쿄진재기』에서 관동대지진 당시의 도쿄의 피해 상황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면밀히 관찰해서 묘사하고 있다. 조선인에 대한 묘사에서는 자경단이 벌였던 참혹한 행동을 통해 인간이 평상심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代社, 2007)』의 다수

26) 이하의 내용에서 지진은 관동대지진을 말한다.

27) 琴秉洞 編(1996)『朝鮮人虐殺に關する知識人の反應 I, 綵陰書房, p.1

28) 羽仁 五郎(1901-1983) : 일본의 역사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역사철학, 현대사

29) 琴秉洞 編(1996) 위의 책, p.1

30) 植田満文(1992)『關東大震災と文学者』武蔵野大学紀要, p.81

조선인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고 있지만, 유언비어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천명이 넘는 조선인의 희생에 비하면『도쿄진재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인이 조선인으로 오해 받을 위험한 상황의 표현, 한 조선청년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 등의 묘사에서는 진실을 알리려는 가타이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슈세이는『소화기』에서 관동대지진 당시의 일본인의 내면적인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군중심리에 지배되어 잔혹한 행위조차도 모두가 함께한 행동이므로 일반적으로 생각되었다는 것은 당시 일본인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불감증을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자신만 재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괜찮다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한 상태와 폐허가 된 도쿄에서 죽음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현실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조선인에 대해서는 오해, 색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았다는 것,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습관 등을 통해 슈세이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주변의 여성과 자신에 대한 심경소설을 주로 쓴 그의 여느 작품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였으며 당시 사회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비판정신이 느껴진다. 또한,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인의 심리를 표현한 것은 당시 허상에 농락당했던 일본인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고자 했던 것에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손은『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선인을 ‘유령’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조선인으로 오해받아 살해당한 일본인을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인도 오해받아 살해되었다는 표현에서 조선인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인 것이다.

당시 일본인은 조선인을 일본의 적, 유령이라고 부를 만큼 적대하는 시각이 있었으며 조선인의 행동에 대한 착각, 편견, 두려움에서 잔학함을 일으켰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었다. 세 작가는 당시 시대상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사상의 일대 사건인 관동대지진의 기록을 통해 각기 다른 형식이지만, 조선인을 다룬 것은 역사적인 사실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사실을 기록하고자 한 작가의 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것이다.

【参考文献】

- 강덕상 저, 김동수박수철 옮김(2005)『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역사와 비평사
 미나미 히로시 저, 서정완 옮김(1996)『일본적 自我』소화
 야마다 쇼지(2008)『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논형
 이미경(2012)『田山花袋と関東大震災』『일본연구』제5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_____(2012)『花袋의 전쟁체험 고찰』『일본언어문화』제21집, 한국언어문화학회

- 伊東整 外7人(1965)『新潮日本文学小辞典』新潮社
神田文人(1986)『昭和史年表』小学館
琴乗洞 編(1996)『朝鮮人虐殺に關する知識人の反應』II 緑陰書房
金原左門(1983)『昭和への胎動』小学館
鈴木勤(1973)『日本人 100年 20-100年の人間群像』世界文化社
島崎藤村(1950)『島崎藤村全集』第11卷、新潮社
田山録弥(1995)『定本 花袋全集』第25卷、臨川書店
田山花袋(1991)『東京震災記』社会思想社
植田満文(1992)『関東大震災と文学者』武蔵野大学紀要
徳田秋声(1973)『ファイアガン』『日本近代文学大系集』21卷
_____(1970)『徳田秋声論』『徳田秋声集 日本文学大系15』筑摩書房
_____(1969)日本現代文学全集 11『徳田秋声集』『作品解説』
_____(1973)日本現代文学全集 28『徳田秋声集』28 講談社版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要旨〉

관동대지진 관련 문학으로 본 조선인관

- 자연주의 작가를 중심으로 -

본고에서는 자연주의 작가인 타야마 가타이의『東京震災記』와 대지진 엄습으로부터 불과 1개월 후부터 발표된 도손의『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 풍자적 형태로 쓴 슈세이의『소화기』에 나타난 조선인의 묘사를 통해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심상(心象)을 고찰하였다.

가타이는 진재 후의 도쿄의 외형적인 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였고, 슈세이는 당시 일본인의 심상을 풍자적으로 묘사했다. 도손, 가타이는 지진 당시의 조선인의 소동이 유언비어였다는 것을 인식했다. 6천명이 넘는 조선인 학살에는 부족하지 만, 최대한의 피해상황도 기록한 것이다. 도손은 조선인을 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일본인 내부에 적이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시대상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사상의 일대 사건인 관동대지진의 기록을 통해 도손, 가타이, 슈세이는 각기 다른 형식으로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에는 진정한 작가정신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Korean view seen from the literature of relation of Great Kanto Earthquake

- At a center writer of naturalism -

Through depiction of the Korean who appeared in “account of the Tokyo earthquake disaster” of Katai who is a writer of naturalism, “Letter sent to a son” of Touson announced in this novel after only one month from the big earthquake attack and “fire gun” of Shusei written with the satirical form It considered the image to Korean whom Japanese felt.

Katai described in detail the outside side and the account of in Tokyo of after an earthquake disaster and Shusei described satirically the Japanese image those days.

Touson, Katai recognizes that the disturbance of the Korean was a false rumor. Although it is insufficient to 6000 Koreans’ slaughter, Touson and Katai recorded the maximum damage situation. Touson had expression that an enemy is in the inside of a Japanese, though Koreans are referred to as being an enemy.

Despite the limit of a time situation, through record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 which is a historical serious-affair, Touson, katai, and Shusei pursued the truth respectively, it is judged that there was true writer soul.